

심내막상 결손증 슬후 추적 관찰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 백병원 흉부외과학교실
류지윤, 이양행, 황윤호, 조광현

심내막상 결손증은 비교적 드문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본 교실에서는 1985년 9월 개심술 시행이후 현재 까지 총 19례 (완전형 5례, 부분형 14례)의 심내막상 결손증을 경험하였으며 추적 관찰을 실시하여 슬후 심장 상태를 관찰하였다.

연령은 최소 6개월에서 최고 33세였으며 남자가 9명 여자가 10명 이었다.

추적관찰은 최소 4개월에서 최고 7년 6개월 이었으며, 생존 16례에서 슬후 초음파의 추적관찰 결과 심실 또는 심방중격결손에 대한 봉합부위에서 유출되는 곳이 없이 전부 잘 폐쇄되어져 있었고 승모판 폐쇄부전은 8례에서 Grade I, 1례에서 Grade II, 1례에서 Grade III의 소견을 보였다.

슬후 3례가 조기에 사망하여 조기사망율은 15.7% 이었으며 3례중 완전형이 2례 부분형이 1례였다.